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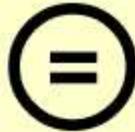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바리공주>의 상징 교육 연구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한보라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바리공주>의 상징 교육 연구

지도교수 고 순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한 보 라

한보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30일



주 심 문학박사 김 쾌 덕 (인)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인)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3
3. 연구 방향 개요	8
II. 신화와 상징	9
1. 신화와 신화 교육	9
2. 신화와 상징	11
가. 상징은 무엇인가	11
나. 상징이해의 교육적 의의	13
다. 신화와 상징의 관계	15
라. 신화 상징 교육의 필요성	18
III. 신화교육과 상징어	20
1. 신화교육의 현황 분석	20
2. <동명왕신화>, <바리공주>, <단군신화>의 상징어	28

IV. <바리공주> 교육의 실제	40
1. <바리공주> 작품 선정 이유	40
2. 학습 단위 개관	42
가. 교사용 지도서의 단위 설정 이유	42
나. 교과서 구성 및 지도서 분석	44
다.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점 보완	47
3. <바리공주> 교수-학습의 실제	48
가. 교수-학습 내용 개관	48
나. 교수-학습 지도안	51
다. 수업 자료	54
V. 결론	62
참고문헌	65

A Study on Education of Symbols in 〈Princess Bari〉

Bo Ra Ha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t is true that the place of myth education is better than that of the 6th curriculum. The works of myth have increased only in a quantitative respect, however, studies of the education in symbols of myth hasn't done fully. For that reason, today, myth is thought to be absurd by most people. Because the birth myths of nation like a story of a man who was born in an egg, and a bear who becomes woman are not realistic.

But it is a wrong result from the misunderstanding of the myths. In short, myth is the symbolic literature. Understanding the symbol, only then people can get the real meaning of the myth. Therefore, in this study, I'd like to suggest ways to understand symbol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understanding of myth.

In order to prepare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first,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th and the symbol; this discussion is based on the Roland Gérard Barthes's theory. Second, three works of myth recorded on text books are analyzed: 〈King Dongmyeong Myth〉, 〈Princess Bari〉, 〈Dan-gun Myth〉. It gives lots of help not only knowing a present

status of myth education but also giving data of symbolic words. And finally ,this study explains about the works, <Princess Bari> , taught to students and propose the teaching-learning plan. The reason why choose this work: First, there is little chance to experience the shamanism myth in the text books. Second, it is an unusual work. Third, it is to remind students of filial piety. Finally, it has variety of Korean symbolic words.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plot and to analyze symbol of <Princess Bari> in a short time. So I make use of a Mind Map method here. A Mind Mapping is a effective method to find the proper symbolic meaning because it will be used to represent words, ideas, tasks or other items linked to symbolic words. It is very proper way to understand symbolic words in short class time. In this way , after comparing before and after of understanding symbolism, it should be presented. This shows how important the understanding of symbolism to the understanding of myth.

Myth has played much of a role to constitute identity and to take a pride. And besides, it is useful to understand other literary works. I hope that scholars of education realiz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of symbolism in myth education and study various education method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신화의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허무맹랑하고 상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과학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신화를 겉으로 드러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화는 신화 언어라는 상징으로써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신화의 내용을 단순히 비유로 본다거나 단순히 원시 세계의 표시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화 속의 다의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신화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신화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의미 또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연구된 신화의 교육적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화는 민족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그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조상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신화 문학에 녹아있는 조상들의 정신, 신앙, 풍속, 가치관 등에서 삶의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습자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상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신화는 말로 존재하고 말로 전달되며, 말로 전승되기 때문에 이야기 구성력, 말하기 능력, 듣기 등의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문학이 상상력의 소산이며 상징적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신화 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화는 민족의 정서와 삶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 상징적 구조물이자 모든 문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신화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민족의 정서와 삶을 신화 교육으로부터 일깨울 수 있다. 또한 신화시대 이후로도 끊임없이 변모되면서 오늘의 문학에까지 이어져 내려온 신화의 상징이 살아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 <동명왕 신화>만을 다루었던 것에 비하면 7차 교육과정에서 신화 작품의 수는 양적으로 늘었다. 중학교 과정에서 매 학년 한 작품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상징의 총체인 신화를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증가가 교육적 효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신화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도 신화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교육적 방법을 중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화 자체는 상징의 총체물이므로 상징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는 내면화까지 가능해 진다.

작품 속에서 상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신화를 배운다면 신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징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른 문학 작품에도 적용을 시킨다면 문학 읽기에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학생들은 실용적이면서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들만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신화의 상징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신화는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오히려 과학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정신적 지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가. 신화교육

신화 교육의 비중과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기로 한 신화의 상징교육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선행연구 조사는 필요하다.

신영화¹⁾의 논문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동명왕신화>의 구조를 분석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방안에 초점을 두어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른 단원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인물 망, 플롯 조직표 등을 접목시켰다.

참고로 <동명왕신화>가 수록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 하는 것이다. 신영화의 논문은 신화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위와 같은 학습 목표로 인해 다루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영웅의 일생 구조를 통한 줄거리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유선형²⁾의 논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지도 방안을 밝히고 있다. <단군신화>를 소설과 비교 분석하여 신화의 장르적 특성 및 후대 서사 문학에 미친 소통신적 관계를 알아보는 형식으로 교수 계획표를 제시하였다. 민숙이³⁾의 논문도 유선형의 논문과 흐름이 같

1) 신영화, <신화교육연구-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명왕 신화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2.

2) 유선형, <단군신화의 텍스트 이해와 교육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4.

고 단지 마지막에 제시한 교수 계획표가 다를 뿐이다.

이들의 논문에서는 신화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고는 있지만,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서 적절한 학습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상적인 학습목표 제시와 교수방법을 제시한데 이 논문들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영진⁴⁾의 논문에서는 신화 교육 의의를 조사, 분석 후에 7차 교육과정에서 신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른 논문과 다른 점은 국어교과의 특성과 연관되는 신화 교육의 의의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최영진은 신화 교육의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국어교과가 아닌 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먼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실제 신화를 분류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의 교과서 반영 제재가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 방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화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논문과 다르다.

그러나 실제 연구대상이었던 신화 교육의 수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와 관계 없이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신화교육의 방법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족한 수업 시수에 대한 지적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위의 논문들을 통해 선행 연구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화를 통해 신화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찾는 학생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영웅의 일생 구조에 대한 학습활동은

3) 민숙이, <단군신화 전승에 관한 문학 교육적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1.

4) 최영진, <신화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3.

제시되어 있으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신화 작품 자체의 분석에서 벗어나, 신화 작품 선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신화는 <동명왕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중 <길 잃은 태양마차>가 있다. 그리고 보충심화에 수록되어 있으나 본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무속신화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가 있다.

위와 같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갈래의 신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는 <단군신화>가 18종 교과서 중에서 3종을 제외한 15종에 실려 있어 일부 갈래와 작품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수업 시수에 관한 지적이다. 신화 작품이 실려 있기는 하나, <동명왕 신화>를 배우는 것이 1차시도 배정되지 않아 신화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말한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는 보충심화에 실려 다른 보충심화 작품과 같은 차시에 배정되어 교수학습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었다.

선행 연구들은 신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 파악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신화를 가르치면서 상징의 의미를 알려주기만 하는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다른 문학작품, 더 나아가 문화에서 상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신화를 이해하는 데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신화 읽기에 능동적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신화에서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상징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상징 교육

신화에서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기 이전에 상징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화와 관련된성을 떠나서 상징 그 자체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자.

김진석⁵⁾은 상징 체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문학의 이해와 감상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말한다. 문학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상징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상징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이 현대시를 제재로 삼고 있고 김진석의 논문 역시 현대시나 소설에서 상징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문학 작품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석은 상징 교육의 필요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육사 작품에서 상징을 파악하는 것을 교사중심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모든 문학의 최종 목표는 내면화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의 주입식 방법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한용⁶⁾은 상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김진석 논문의 한계점을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상징 읽기를 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문학 교육은 상징성을 띤 언어의 의미를 읽어내고 상징적 언어 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게 된다고 말한다. 상징을 읽어 내는 일은 ‘자아성장’과 연관되는데 그 이유는 상징 형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5) 김진석, <문학교육과 상징>,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제 5호』, 2001.

6)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그의 논문은 상징을 읽어내는 것이 ‘자아성장’과 연관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상징 교육의 의의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상징 교육이 문학 작품 감상에 전제가 되고 자아성장에 기여한다는 가치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상징을 읽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향 개요

신화 연구에서 신화 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많지 않다. 부족한 수업 시수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주입식으로 가르쳐지거나, 단원이 수록된 학습목표 달성에만 그치고 있다. 신화에서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신화가 허무맹랑하며, 청소년기의 학생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이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의 사고 능력 발달과 함께 자아성장에 기여하는 상징 교육은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화의 상징성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신화와 상징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신화의 상징 교육 필요성을 정리하여 연구의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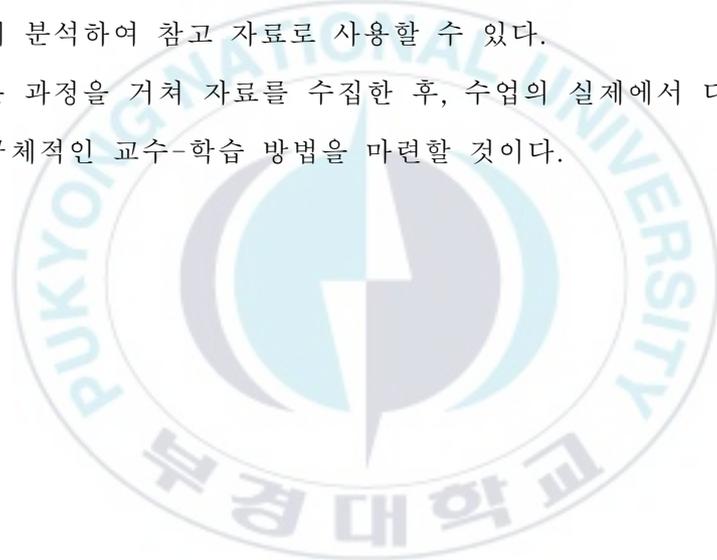
둘째, 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신화작품을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수업의 실제에서 다룰 작품 선정에 위한 단계가 된다.

셋째, 각 신화 작품의 교과서 구성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 신화를 가르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지, 학습목표 달성에 적절한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 수록 신화 작품의 상징어를 정리하여 수업의 실제에 제시할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수업 방법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일지라도 교사가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분석 자료를 실제에 적절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방법 정리이다. 교사용 지도서는 현직 교사들이 수업의 실제를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기본서에 해당한다. 지도서 그대로 수업하는 현직 교사들도 있겠지만 참고로 수업 방법을 창안할 수도 있기에 분석하여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한 후, 수업의 실제에서 다룬 작품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Ⅱ. 신화와 상징

1. 신화와 신화교육

가. 신화는 무엇인가

신화란 전통적인 의미로는 원초적인 신념을 반영하고 자연의 세계, 우주에 대한 신비를 설명하는 작자 불명의 이야기이다. 더욱이 근래에는 국민의 집단적인 가치에 대한 상징적 언어가 되었다.

엘리아데는 신화를 ‘신성한 역사’라고 하였고 조셉 캠벨은 ‘신화는 삶의 경험담이며 인간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신화를 ‘과학의 시초이며 종교와 철학의 본체이자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규정한 J.F.비얼레인도 있다.⁷⁾ 다양한 정의의 공통점은 신화가 태초의 사건이나 자연, 사회 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점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아성찰을 하는 것이 신화 읽기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화 속에 숨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롤랑 바르트는 신화를 역사에 의해 선택된 *빠롤*⁸⁾이라고 규정하였다. 신화에 대한 정의가 곧 신화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것은 신화와 상징의 관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7)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1, 36쪽.

8) 롤랑 바르트,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17쪽.

나. 신화교육은 왜 필요한가

과학적인 사고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무한 이야기 같은 신화의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과학이 현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신화가 해 줄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화가 현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화 안에 용해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근원을 밝혀내는 한편, 신화가 오늘을 사는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화 교육의 의의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화주인공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의 실체와 의미는 무엇이며 이러한 신화주인공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일이다. 신화 주인공들의 통과의례와 시련, 고통이 오늘날 희망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체성 교육이다.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기이다.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일탈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신화는 세계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⁹⁾

셋째, 사고력 교육이다. 신화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상징적인 요소가 많다. 작품의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는 상징을 읽어내야 하는 사고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고력이 바탕이 되어 후대 문학의 원형적 상징 등을 파악하기 쉬워질 수 있고 실제 생활에 있어 상징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9) 유선형, 『단군신화의 텍스트 이해와 교육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4, 56~57쪽.

신화의 교육적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화와 상징의 관계를 이해하여 신화에서 생명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신화의 교육적인 의의를 달성할 수 없다. 신화에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처방과 현재 우리 삶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역시 이로부터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신화 교육은 현대의 문제점을 실례로 들어 신화적 삶과 비교해 보면서 신화는 단순히 허무맹랑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고대 신화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양상과 방향을 알게 하고 학문과 삶을 접목시킬 수 있다면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화와 상징

가. 상징은 무엇인가

상징은 ‘조립하다’ ‘짜 맞추다’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상징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 상징은 일반적 의미의 기호도 아니며 제도적 상징도 아니다. 문학적 상징이란 불가시적인 것을 암시하는 가시적인 것이다. 불가시적인 것은 원관념이고 가시적인 것은 보조관념이 된다.¹⁰⁾

상징의 교육적 의의와 함께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알기

10)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1, 195~196쪽.

위해서 우선 상징의 특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준오가 말한 상징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유와 비교해서 말하면 상징은 비유에서 원관념을 떼어버리고 보조관념만 남아 있는 형태다. 비유란 유사성으로써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은 그 본질상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하나의 완전한 결합체가 된다. 이것이 상징의 본질적 성격으로서의 ‘동일성’이다. 관념과 이미지가 일체화되어 있는 상징의 동일성은 암시성, 다의성, 문맥성 등을 하위 속성으로 지닌다.

‘암시성’은 반투명성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드러냄과 감춤의 조화를 추구한다. 암시성으로 인해 독자마다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반응이 다양해지므로 ‘다의성’이라는 속성으로 연결된다. 상징은 고립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에 의해서 달라지고 탄생된다. 상징은 전후 문맥에 어느 이미지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심상이나 비유는 작품의 일부분에 작용하는 기능을 하는데 비해 상징은 작품 전체에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을 ‘문맥성’이라고 한다.¹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징의 암시성, 다의성, 문맥성이라는 특성은 학습자들이 상징 해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조망하고 다방면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정기철은 상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징은 기호이다. 기호란 의미를 전달하는 표시물이다. 그러나 단순한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 지향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데 부주의하여 그만 김치가 하얀 와이셔츠에 묻었다. 물리적으로 얼룩이 진 상태이다. 이 물리적 얼룩(일차적 지향성)을 통해 사람의 상황(이차적 지향성)을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물리적 얼룩이 사람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11) 김준오, 앞의 책, 197~211쪽.

성스러운 무엇 앞에서 때 묻고 더러워진 사람의 상황을 가리킨다. 일차적 지향성을 문자 기호 또는 기술 기호라고 하면 이차적 지향성을 상징 기호라 한다.¹²⁾

이와 같이 상징은 이차적인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상징 파악이 가능하다. 김준오가 말한 상징의 다양성과 암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특성과 지향성을 가지는 상징을 이해하는 활동을 학생들이 한다면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한다.

나. 상징이해의 교육적 의의

상징의 특성인 암시성, 다의성, 문맥성을 앞서 살펴 보았다. 이것은 상징이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징 교육에서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피아제(Piaget)의 설명처럼 학습자의 인지가 동화와 조절의 반복으로 평형화¹³⁾되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습자들이 상징어를 접했을 때, 인지구조에서 불평형이 일어나게 되고 호기심이 유발되면 비고스키(Vygotsky)가 설명한 ZPD(Zone of Proximal Development)¹⁴⁾가 생길 것이다.

이 때, 이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비고

12)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4, 40~41쪽.

13) 김정섭 외, 『교사를 위한 교육심리학』, 서현사, 2005, 32쪽.

평형화(equilibration)란 '동화'와 '조절'에 의하여 유기체 스스로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인지구조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인지발달의 핵심기능이다.

14) 김정섭 외, 위의 책, 38쪽.

ZPD는 아동이 과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수준과 성인 혹은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스키는 비계설정(Scaffolding)이라 하였다. 교사가 상징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학습자가 교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와 같이 상징 교육은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기주도적학습, 탐구학습에 적합한 수업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우한용은 상징의 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상징은 의미해석의 폭이 넓은 뿐만 아니라 개인적 심리의 치유와 사회적 정화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문학의 기능 일반, 아울러 문학교육의 기능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학교육은 주체 혹은 자아가 세계와 어떻게 연관을 맺어가는가, 주체와 대상은 어떻게 통합이 가능한가, 어느 사회의 불균형이 드러나면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소하는가 하는 문제를 겨냥한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균형감각의 형성을 뜻하는데 뒤랑은 그 기능을 삶에 대한 균형의 회복, 심리사회학적인 균형 회복, 인류학적 균형의 회복, 영원불멸의 여명기에 이르게 되는 현현(顯現)에 도달하는 등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¹⁵⁾

주체가 세계와 불균형을 이룰 때, 그것을 좁히고자 하는 것이 상징의 의미해석이라고 보고 상징 해석을 개인적 심리의 치유로 보는 시각이다. 그동안 상징을 문학의 해석과 이해로만 본 것에서 나아가, 심리 치유와 사회정화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은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징은 우리의 상상과 지적 추리를 확대, 심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징은 암시성, 다의성, 문맥성을 지니기에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징을 읽어내는 일은 자아성장과 연관된다. 개인의 성장은 상징

15) 우한용, 앞의 책, 142쪽.

형식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그 결과로 자신의 세계를 상징세계 내에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포함한다. 상징 형식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인지의 발달 과정에서 추상화 상징화의 높은 단계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상징 이해의 교육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가 세계와 불균형을 이룰 때 그것을 좁히고자 하는 것이 상징의 의미해석이므로 개인적 심리의 치유의 기능이 있다.

둘째, 상징을 읽어내는 것은 자아성장을 의미한다. 자아성장을 바탕으로 상징에 대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상징의 암시성, 다의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양적으로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문맥성을 바탕으로 상징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것은 인지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처럼 상징 이해의 교육적 효과는 심리치유, 자아성장, 인지 발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런 상징 이해의 효과가 신화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신화가 상징적 문학인지, 상징과의 관계가 있을 때 신화의 상징 이해 논의가 가능하다. 다음에서 신화와 상징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다. 신화와 상징의 관계

신화는 상징언어들의 집합이다. 롤랑 바르트는 신화의 고유한 속성을 ‘의미를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¹⁶⁾이라고 했다. 이어서 신화가 언어를 흠친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신화가 인간 존재와 인간문화의 시초에 정당성을 부여하

16) 롤랑 바르트, 앞의 책, 51쪽.

기 위해 형식인 상징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가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상징언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신화와 상징과의 관계 이전에 롤랑 바르트는 넓은 범위의 문학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하고 있다. 어떤 시대의 사회는 무엇이 문학인지 무엇이 문학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문학이 작가의 순수한 창작 행위에 속하기 보다는 작가가 삶에 얽혀야 하는 사회적 제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작가가 문학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표현하려는 것을 사회적으로 유통 가능한 것으로 드러내야 한다.

롤랑 바르트는 사회적으로 유통 가능한 것을 ‘시니피앙’이라고 했고, 표현하려는 것을 ‘시니피에’라고 했다.¹⁷⁾ 하나의 작품이란 개인의 의도성을 시니피앙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니피앙을 상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위와 같이 바라본다면, 그에 속하는 신화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롤랑 바르트는 신화를 신화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호학적 연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특수한 체계라고 말한다.

신화는 이차적인 기호학적 체계인 것이다. 일차적인 체계에서 기호에 해당하던 것은 이차적인 체계에서 단지 시니피앙이 될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화적인 소재들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소재들이 신화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소재들은 의미를 만들어 내는 순수한 기능으로 환원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¹⁸⁾

다음의 표는 롤랑 바르트가 위의 설명을 도식화해 놓은 것이다.

17) 롤랑 바르트, 앞의 책, 24쪽.

18) 롤랑 바르트, 위의 책, 25쪽.

<표 1>

1.시니피앙 (청각적 이미지)	2.시니피에 (개념)	
3. 기호 A. 시니피앙		B. 시니피에
C. 기호→의미작용		

빗금이 된 부분이 신화의 영역으로 1과 2에 해당하는 일차적인 체계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단계임을 쉽게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화의 시니피앙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 즉, 신화의 시니피앙인 A는 의미인 동시에 형태가 된다.

롤랑 바르트는 시니피앙을 텅 빈 것이라 하고, 기호를 충만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기호 3은 다시 시니피앙 A가 되면서 텅 빈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는 증발하고 문자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유예된 죽음’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화를 시니피앙 A 그 자체로 이해하여 시니피에 B를 찾아 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작용 C를 통해 충만한 무엇인가를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보존하고 있는 생명을 찾는 것, 그것이 신화를 읽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텅 빈 시니피앙에서 신화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신화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신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신화는 살아질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신화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신화를 이제껏 존재하게 했던 이유가 된다. 신화의 상징 이해가 신화 자체의 존립 여부와 직접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신화와 상징의 관계를 말한 리쾨르에 의하면 신화와 상징을 분리시켜 생

각할 수 없다고 했다.

상징 언어는 이중성을 품고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뛰어넘어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이중 언어이다. 의식이 언어로 표출될 때, 리콥르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 의식은 상징을 통해 형성된다.’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 일차적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차적 상징이 해명되어야 한다.¹⁹⁾

신화의 상징을 중시하자는 것이 리콥르의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리콥르는 신화의 재고를 강조한다. 즉, ‘재신화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신화를 회복하는 작업을 새롭게 부각시키자는 것이다. 리콥르의 말은 위에서 말한 텅빈 시니피앙에서 신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는 말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이차적 상징 해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를 통해 신화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신화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화의 상징성을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신화는 곧 상징의 문학이라는 둘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라. 신화 상징교육의 필요성

신화와 상징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신화에서 왜 상징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렸을 것이다. 롤랑 바르트가 말했듯이 텅빈 시니피앙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신화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19) 정기철, 앞의 책, 40쪽.

그러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합한 기호에서 맥락을 파악하여 이해한다면 신화가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가 상징이라는 포장을 싸고 있지만, 신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신화에 포장이 되어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혹은 포장이 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하면 그 포장을 풀어내고 내용물을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 그 포장을 풀 수 없다면 신화의 진정한 맛을 모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화의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징적 언어가 신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상징성을 파악하고 나면, 신화의 구조는 물론이고 주제까지 막힘없이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정체성 발견, 주인공이 겪는 시련과 현재 자신의 삶과의 관계 등의 신화교육의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징교육이 신화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상징과 신화의 관계를 통해 신화에서 상징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정리해보았다. 다음은 교수 실재를 구성하기 전 단계로, 현재 교과서에 수록된 신화 작품을 분석하여 실제의 작품을 선정하기로 한다. 교과서 분석을 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자료를 위해 상징어 분석을 하도록 한다.

Ⅲ. 신화교육과 상징어

1. 신화교육의 현황 분석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가 지니는 관념성과 상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와 오락적 기능 등을 지닌 전설이나 민담에 비해 신화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화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신화에 나타난 상징어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신화에 나타난 상징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학습자들이 인식한다면 신화를 읽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내면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신화에는 어떤 작품이 있고 어떠한 학습 목표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교과서와 지도서를 참고로 정리해 보았다.

<표 2> 7차 문학 영역 신화 수록 현황 (7학년 ~ 10학년)

작품	수록 학년	수록 단원
동명왕신화	7학년 2학기	2.문학의 아름다움 (4)옛 이야기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	8학년 2학기	2.이야기의 구조 보충심화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매년 신화 작품 하나씩을 접하고 있으나 <표1>에 정리한 것은 9학년의 <길 잃은 태양마차>를 제외한 것이다. 현재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문학의 특질을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리스로마신화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0학년에는 신화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공통기본교과 내에서는 <동명왕신화>와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 두 작품만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법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심화선택과목인 문학은 문학 교과서가 18종에 해당하고 수록 작품도 다양하여 모두 살펴볼 수 없다. 다음 <표2>를 보자.

<표 3>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신화 수록 현황²⁰⁾

작품	디 딤 돌	천 재	금 성	두 산	문 원 각	블 랙	민 중	중 앙	한 교	상 문	교 학 구	교 학 김	지 학 권	지 학 박	칭 대 문 각	태 성	형 설	수 록 횟 수
단군신화	◎		◎	◎		◎		◎	◎	◎		◎	◎	◎	◎	◎	◎	14
주몽신화			◎				◎				◎					◎		4
박혁거세신화		◎																1
연오랑 세오녀					◎													1
바리공주	◎					◎					◎							3

위의 표에서 각 출판사별로 신화를 적어도 한 작품씩을 다루고는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단군신화>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종 중에서 4종을 제외한 모든 출판사에서 단군신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단군신화를 우리 민족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고

20) 김문태, 『신화교육과 국어교과교육의 현장』, 보고사, 73쪽.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 및 한국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기 적당해서일 것으로 보인다.

심화선택과목인 문학에서는 가장 많이 수록된 <단군신화>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동명왕 신화

7학년 국어 교과서의 <동명왕신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동명왕신화의 교과서 구성²¹⁾

구성 단계		내용 및 활동
읽기 전		이전에 들었거나 읽었던 옛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읽기 중		동명왕 신화의 내용과 모르는 단어의 각주
읽기 후 (학습 활동)	내용 학습	1. 동명왕 신화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 보자. 2. 이야기의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자
	목표 학습	이야기를 읽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써 보자. 그리고 느낀 점 또는 교훈을 적어 보자.
	적용 학습	신화, 전설, 민담 중에서 하나의 형식을 선택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이야기의 형식, 제목, 등장인물, 주요사건, 결말)

동명왕 신화가 실려 있는 2단원의 단원명은 ‘문학의 아름다움’으로 단원 목표는 ‘문학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로 설정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 설정의 이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2005, 72~84쪽, 참고 정리.

이 단원에서는 문학과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운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은 독자가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된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이나 귀 등을 통해 느끼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깊이 느낄 때에 의미가 있다. 즉,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작품의 세계를 독자는 미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의미를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는 작품의 미적 가치와 작가의 세계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미적인 세계와 가치관을 창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가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²²⁾

학습자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발휘,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는 것이 본 단원 설정의 목표이다. 동명왕신화가 실려 있는 소단원 ‘옛 이야기’에서는 우리 민족 전통의 고유한 가치관을 느끼고 글의 내용과 느낌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가치를 느끼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는데 ‘사고 구술(think aloud)’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표3>을 보면 ‘목표학습’에서 선인들의 삶의 가치를 이해하며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소단원에 수록된 전설과 민담까지 2차시로 배정되어 있어 동명왕 신화 자체에 대한 구체적 학습이 불가능하다. 활동 역시 설화의 특성을 아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고 신화를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하기 이전에 신화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2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2』, 2003, 88쪽.

나.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

바리데기 신화가 실려 있는 단원명은 ‘이야기의 구조’이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에는 그 나름의 일정한 구조가 있음을 안다. 둘째,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바리데기 신화의 교과서 구성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5> 바리데기 신화의 교과서 구성²³⁾

문항	학습활동 내용
1.인물	(1) 바리공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성격과 역할 바리데기, 대왕마마와 중전마마, 바리공주의 여섯 언니들, 바리공덕할멈과 바리공덕할아버, 무장승
	(2) 바리데기는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신분의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를 아래의 빈 칸에 정리해 보자.
2.구조	(1) 바리데기가 태어나서 소원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파악. 바리데기를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2) 바리데기의 일생을 영웅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의 일반적 생애에 비추어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해 보자.
3	바리데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바리데기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보자.

바리데기 신화는 같은 단원에 있는 ‘아기장수 우투리’의 이야기 구조와 상통하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보충 심화에 실어 놓았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안하는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리공주 이야기는 우리 나라 무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구조가 매우 잘 드러나는 이야기이다. 바리공주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구

23)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2005, 85~100쪽 참고 정리.

조를 파악하게 하여 구조를 파악하는 힘을 키우고 심화시키는 데 이 활동의 목적이 있다. 24)

따라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닌 여러 작품 중 구조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과 효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텍스트라 학생들에게 유익한 신화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심화에 실려 있어 다루기 어렵다는 점과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는 단원에 실려 무속 신화에서만 볼 수 있는 상징을 찾는 것에 학습 활동이 할애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다. 단군신화

<표2>에서 보았듯이 18종 교과서에 실린 모든 신화 작품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징 교육의 여부와 상징 교육의 방법을 살피고자 하는 것에 분석의 목적이 있으므로 18종 교과서 중 16종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를 그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인 문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심사를 한 18종의 교과서가 있다. 18종의 교과서 중 선택 비중이 높은 문학 교과서는 천재교육, 디딤돌, 두산,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가 있다.²⁵⁾ 그 중 디딤돌 문학 교과서를 참고로 구성과 학습활동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단군신화>는 디딤돌 문학 (하)권 II.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 단원의 상고 시대의 문학, 원시~통일 신라 시대의 문학에 속해 있다. 교사용 지도

24)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2-2』, 2006, 125쪽.

25) 김문태, 앞의 책, 46쪽.

서의 지도 핵심은 다음과 같다.

<단군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서사적 줄거리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서사적 내용의 상징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즉 교사는 지도에 임할 때 줄거리 자체의 현실성 여부보다는 등장 인물의 신성성과 주요 인물의 행적이 갖는 상징성, 역사의 발생과 민족사적 관점에서 본 주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민족 문학의 원류로서 <단군신화>의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도해야 한다.²⁶⁾

이 단원에서는 ‘서사적 내용의 상징성 파악’과 민족 문화의 원류로서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지도의 핵심이 된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신화를 텍스트로 다루고는 있지만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소홀했다. 그러나 심화선택과정에서는 신화 작품에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상징을 해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상징 해석을 위해 학습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다음 <표 5>를 보자.

26)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하) 교사용지도서』, 도서출판 디딤돌, 2003, 185쪽.

<표 6> 단군신화의 교과서 구성²⁷⁾

구성 단계	내용 및 활동	
도입글	원시 문학에서 통일 신라 문학까지의 통시적 전개 양상 이해	
본문	단군 신화 전문(삼국유사)	
학습 활동	친해지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곰’과 ‘호랑이’의 이미지와 <단군신화>에 그려진 ‘곰’과 ‘호랑이’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말해보자.
	꼼꼼히 읽기	1. 환웅이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하는 부분을 찾고,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자. (1)왕으로서의 권능 (2)제사장으로서의 권능
		2. 환웅의 신성한 권능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보자
		3. 환인이 삼위 태백의 땅에서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가능성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시야 넓히기	1. 염상섭의 <삼대>와 채만식의 <태평천하>도 삼대(三代)의 이야기이다. 이 두 작품을 <단군신화>와 비교하여 조(祖)-부(父)-손(孫) 중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지 알아보자.
2.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사에서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조사해 보자.		
표현하기	<단군신화>는 환웅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것을 사람이 되고자 한 곰의 이야기를 서두로 하여 바꾸어 이야기해 보고, 옆 친구의 이야기를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 보자.	

<표5>의 ‘친해지기’에서는 신화적 세계관을 오늘날의 자연물에 대한 관점과 대비하면서 접근하는 예비단계로 설정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공통 교과에서는 살필 수 없었던 신화의 상징에 대한 접근이 선택과목인 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꼼꼼히 읽기’의 두 번째 문제 역시 ‘천부인(天符印)’의 상징을 찾는 문제로 소재의 상징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신화에서 상징을 파악하는 것이 신화 이해에 중요함을 심화선택과목인 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하)』, 도서출판 디딤돌, 2003, 129~132쪽 참고 정리.

문학에서는 신화의 학습 방법을 다양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상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징이 한국 문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서 상징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환웅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들이 ‘작품을 반복해서 읽기’에서 지도사항을 그치고 있다.

상징 이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지도도 없이 읽기만 반복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짧은 수업 시간에 무작정 학생들에게 읽기만을 지도한다면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게다가 교사용 지도서에서 1차시로 한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수업이 될 수 있다.

학습 목표와 활동이 신화 이해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없으므로 방법적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동명왕신화>, <바리공주>, <단군신화>의 상징어

교과서 본문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상징어를 찾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목적은 어떤 상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상징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이설이 많아서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정리한 것은 교사의 자료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습서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징어가 나온 본문을 인용²⁸⁾하고 그

속에 나타난 상징어의 의미를 정리하는 순서로 구성한다.

가. 동명왕 신화

(1) 동명

‘식북’이라는 뜻으로 ‘식’은 동쪽, ‘북’은 광명, 태양을 가리킨다. 결국 동명왕이란 시호는 ‘동방을 새로 밝힌 왕’ 또는 ‘동방의 태양’이라는 찬양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²⁸⁾

임재해는 동명의 의미를 태양신이라고 똑같이 보고는 있지만 그 이유를 해모수와 연결시키고 있다.

주몽을 두고서 동명(東明)이라 하는 까닭도 ‘해모습’을 한 태양신의 아들은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여명이나 다름없이 때문이다. 해모수와 동명은 모두 태양신을 표방하는 상징성을 지닌 이름이다. 그러므로 태양신의 정통성은 해모수에서 동명성왕 주몽으로 이어지는 셈이다.³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태양은 신이나 왕을 상징하는 요소이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영원성, 생명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알

금와가 이상히 여겨 유화를 데려와 집에 두었더니, 햇빛이 그녀의 몸을 비추는데 이를 피해도 쫓아가며 비추었다. 이로 해서 잉태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

28) 교과서 본문을 인용한 것은 각주를 생략함.

29) 김문태, 앞의 책, 59쪽.

30)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119쪽.

기가 다섯 되들이나 되었다.

원형적으로 최초의 기본적 형태인 알은 하나의 완결성, 온전함을 상징하며 우주의 형상으로 여겨진 알을 원시인들은 매우 신성시하였다. 이러한 알의 의미를 ‘알은 태양을 뜻하는 것으로 태양은 빛과 열과 광명을 주는 신으로 간주되었다.’고 하여 난생 설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난생설화는 원시사회에서 종족의 우월성과 치자(治者)의 존엄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았다. 난생설화가 갖는 이러한 효력은 가야의 김수로왕, 신라의 박혁거세, 석탈해 등 다른 지배세력들 사이에서도 이 설화를 이용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3) 숫자 7

기골이 영특하고 기이하어 일곱 살에 벌써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다.

우리나라에서 7은 변화의 숫자로 인식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7로 여겨, 삼칠일이나 7이 두 번 지난 49제가 7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명왕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나이가 7세였던 이유는 7이 완전수라고 믿어왔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신화에서 일곱은 성수(聖數)로 나타난다. <박혁거세 신화>에서 혁거세가 하늘에 오른 후 7일째 되는 날 토막난 유해로 땅에 떨어진다. <동명왕 신화>에서는 유리가 아버지 주몽이 일곱 모가 난 돌 아래 숨겨둔 칸 조각을 찾아낸다. <석탈해 신화>에서 탈해는 토함산에 돌무덤을 만들고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살 곳을 찾는다.³¹⁾ 이와 같이 7은 나라의 기틀을 잡고, 영웅을 시험하는 수로서의 신성함을 보여준다.

31) 리영순,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훈민, 2006, 241~242쪽.

(4)말(養馬)

그러나 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 기르는 일을 맡겼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니 왕은 살찐 것을 타고 여윈 것은 주몽에게 주었다.

신화에서 종종 말은 신의 사자(使者), 하늘의 중개자로 등장해서 말이나 말의 용구가 신이함을 발휘한다. 혁거세 신화에서 알을 운반해준 말도 결국은 하늘에서 보내준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말을 굉장히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소나 돼지, 혹은 개를 먹으면서도 말고기는 먹지 않았으며, 말이 죽으면 따로 무덤까지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말은 제왕 출현의 징표로서 신성시되었고 하늘과 교통하는 신성한 영물(靈物)로 여겨졌다.

나.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³²⁾

바리공주는 그 이분이 많아 각 작품마다 나타나는 소재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보충심화에 실려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각 이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소재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1) 흑거북(거북)

“대명전 대들보에 청룡과 황룡이 엉켜 보이고, 오른손엔 보라매, 왼손엔 백마를 받아 보고, 왼무릎엔 흑거북을 안아 보고, 양 어깨에 일월이 돋았나이다.”

“아, 그렇다면 이것은 십장생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군왕을 비유하는 것들이니 이번에는 필시 세자일 것이오.”

32) 7차교육과정 8학년 교과서에 있는 제목 그대로 표기함.

거북은 십장생 중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고 있고 고대가요 <구지가>에서 거북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스런 존재로 상징된다. 주몽이 강을 건널 때 도와주고, 바리공주의 함이 가라앉지 않도록 운반해 주는 주로 긍정적인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2) 옥함

왕은 한참 탄식을 하다가 이 자식을 버리기로 하였다. 서해 용왕에게 진상품으로 싸 보내기로 하였다. 옥함을 짜서 아이를 넣고 ‘국왕 공주’라고 써서 바다로 띄우기로 한 것이다. 한 번 물에 들어간 함이 솟아난다. 다시 집어 넣었더니 또 솟구친다. 나중에 던져 버리니 이번에는 금거북이 등에 지고 나온다.

바다로 띄워진 바리공주의 옥함을 보면 석탈해가 함에 넣어져 바다에서 건너왔다는 신화와 일치하게 된다. 함은 상자를 단게 되면 폐쇄적인 공간이 된다. 폐쇄적인 옥함과 같은 공간은 <단군신화>에서 곰과 밤이 있었던 ‘동굴’, 주몽과 수로왕이 있었던 ‘알’, 더 나아가 고전소설 <춘향전>의 ‘감옥’, <심청전>의 ‘연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폐쇄적인 공간의 의미는 통과의를 상징하고 있으며 시련을 극복하여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3) 새 (학, 까치)

신하 하나가 자진해서 고생해서라도 바리공주를 찾겠다고 공중을 나선다. 막막하다. 안타깝다. 바리공주는 어디 있을까? 이 때 까막까치가 인도한다.

새가 영혼의 상징으로 이해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즉 현실세계를 오가는 매개물로 나온다. 새는 인간이 갈 수 없는 비현실계를 자유롭게 왕

래할 수 있는 존재로 믿었다. 이것은 천계와 지상계를 넘나드는 새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조상은 십장생 중의 하나인 학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학은 천상과 지상의 연결자로서, 혹은 천상존재의 대항자 혹은 변신체로서 버려진 바리데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³³⁾

(4) 숫자 3, 9

“하하하하. 그럼 길값으로 나무 삼 년 하고, 다음에 삼값으로 불 삼 년 때고, 물값으로는 물 삼 년 길어 오너라.”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다 해 주다 보니 석삼년, 합쳐서 구 년이 지나갔는데.

3은 순양수인 1 더하기 순음수인 2는 음과 양이 만남으로써 최초의 완전수를 상징한다. 9는 완전수 3이 3번 지난 것으로 양의 기운이 충만한 숫자로 상징되고 있다.

바리공주에서 완전수의 의미는 고통의 시간을 완벽하게 지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통과례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의견으로 김열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옛날 옛날 아주 옛날’로 시작하며, ‘가위, 바위, 보’를 할 때도 삼 세 번 하는데 이와 같이 비슷한 말을 세 번 씩 반복함으로써 주술적인 신비한 매력을 가진다고 한 바 있다.

(5) 꽃

33) 김영민, <바리데기 무가의 신화비평적 연구-자기실현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학회 58호, 2006, 188쪽.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눈을 뜨는 개안초도 주고, 숨도 살고 뼈도 살고 살도 살아나는 숨살이꽃이랑 뼈살이꽃이랑 살살이꽃도 주고, 또 약수도 떠 준다.

꽃은 일반적으로 형상 그 자체에 주목하여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그러나 신화에서 나타나는 꽃의 상징은 다양하다. 우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꽃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요정들이 죽은 나르시스를 위로하기 위해 피어나게 한 꽃 수선화는 슬픈 사연이 있는 꽃이고, 달의 신을 사모한 요정이 주피터의 심술로 변해버린 달맞이꽃은 기다림의 상징이다. 로마 신화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다시 피어난 꽃이 봉선화라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나 아름다움의 상징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꽃이 비극적 운명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면 우리 신화에 나타나는 꽃은 재생이라는 차별적 의미를 가진다. 꽃의 상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리공주>가 적절하다.

<바리공주>에서 꽃의 두 가지 상징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이현숙은 꽃의 상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천상존재의 변신체로서의 꽃인데, 이는 바리공주의 잉태를 알리는 태몽에서 드러난다. 이본에 따라서는 천상선녀가 내려와 오구부인에게 꽃 한 송이를 줌으로써 잉태하거나 초록동이 한 손에 매화를 들고 들어오는 것으로 태몽이 제시돼 있는데 이들 꽃과 매화는 후에 바리공주로 태어날 천상 존재의 변신체라 할 수 있다.

둘째, 꽃이 지니는 더 중요한 기능은 죽은 생명을 회생시키는 환생꽃으로서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바리공주는 약수 외에 꽃을 얻어온다. 이 꽃들은 대개 뼈살이꽃, 살살이꽃, 숨살이꽃이라 불려지고 있는데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신비의 꽃이다.³⁴⁾

꽃은 열매로 열매는 다시 씨앗으로, 다시 꽃으로 피게 되니 영생불멸 영원함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태어 세 번째 의미로서의 꽃은 무속적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신당에 바쳐진 꽃은 신당의 장식물로서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이 강림하는 장소가 되는데 신과의 대화 통로가 된다. 어떤 신당에서는 신당에 바친 꽃들이 무당이 질문을 하면 흔들리면서 그에 대한 화답을 하여 준다. 신당이나 곳에 사용하는 꽃은 신이 강림하는 통로 곧, 신대인 것이다.³⁵⁾

우리의 무속 신화에서 살펴 본 꽃은 현대 우리가 알고 있던 꽃의 의미와는 다르다. 현대에는 꽃의 본질을 보기 보다는 가시적인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속신화에서 바라본 꽃에는 더욱 다양하고 깊은 상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형적 상징과는 다른 민속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 상징으로, 학생들에게 상징의 다양성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약수(물)

바리가 병을 기울여 아버지 입에 약수를 흘려 넣자 막혔던 숨이 콧 하고 터졌다. 오구대왕이 숨을 몰아쉬면서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³⁶⁾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모든 생명체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대가요 <공무도하가>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34) 이현숙, <바리공주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과 교육적 의미>, 『설화 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363~364쪽.

35) 조성제 『무속에 살아있는 우리 상고사』, 민속원, 2005, 94쪽.

36)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109쪽.

교과서의 내용에는 꽃이라는 소재 뿐이고 약수가 나오지 않아, 이본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약수를 추가하였다.

또한 고려속요 <서경별곡>과 정지상의 한시 <송인>에서의 물은 이별을 상징하기도 한다. <바리공주>에서는 죽었던 오구대왕을 다시 살린다는 문맥적 의미를 결부시켜 재생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다. 단군신화

(1) 신단수

신단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수직적 상징으로 신성한 장소임을 알려주는 소도의 솟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추측한다. 건물의 담과 금줄, 솟대와 마을 입구의 장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계를 상징하는 지표와 형상물들을 한국문화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샤머니즘 속에서 경계와 관련된 시각적 상징들 중에 첫째로 신단수가 있다. 단군신화에서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타고 내려온 신령한 나무로서 지상과 천상의 경계와 그 통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³⁷⁾

김영훈은 신단수가 경계를 나타내는 시각적 상징이라고 말한다.

(2) 천부인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칼, 거울, 방울을 의미하여 제사장의 권능을 상징한다는 설과 기상을 조절할 수 있는 신성한 주술물이라는 설 등이 있다. 주술적 의미와는 달리

37) 김영훈, <한국샤머니즘과 경계의 의미 - 시각적 상징연구>, 『샤머니즘연구』, 한국샤머니즘학회 제 3호, 2000, 56쪽.

약간 다른 시각의 의견도 있다.

천은 임금의 경칭이므로 임금의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하고 부는 부적(符籙)과 부물(浮物)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 부적은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리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상징한다. 따라서 부물은 왕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리며 보호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은 임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장을 의미하리라 생각된다. 38)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이 물건들이 제례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든, 농경사회에서 기상을 조절하는 기후로 보든 또는 왕의 직분을 상징해 주는 물건으로 보든지 당시에 권능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음은 공통적이다.

(3) 풍백, 우사, 운사

그는 풍백(風伯), 우사,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삼백예순 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농업 경제에 기반을 둔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청동기 시대인 고조선에는 농업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곶(웅녀)

이 때, 곶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에게 사람되기를 빌었다. 이 때 신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곶과

38) 김영훈, 앞의 책, 39쪽.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기(忌)한지 21일(三七日)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곰이 인간으로 변신한 존재로 신화적 상상력이 잘 반영된 존재이다. 임재해는 곰의 식성에 착안하여 천신족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곰은 육식 뿐만 아니라 초식도 한다. 겨울이면 굴속에서 오랫동안 칩거도 할 수 있다. 유목민들도 그러하다. 수렵민들과 달리 어느 정도 곡채식을 하며 얼마간 정착생활도 한다. 유목민들은 농경생활을 다소 겸하기도 하므로 농경민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곰은 범과 달리 사람으로 변신하고 곰토텐족이 천신족과 함께 농경생활을 하며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³⁹⁾

또한 곰이 인간 중에서도 여성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달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곰은 달동물(lunar animal)이며, 달동물은 물과 관련되며, 물은 여성성과 출산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베리아 북부지역부터 한반도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곰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⁴⁰⁾

곰 이외의 달 동물로 뱀, 개구리, 지렁이, 달팽이를 들 수 있다. 이는 달이 이지러지고 차는 것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 즉, 재생적 관점에서 본 것과 일치한다. 달의 속성과 위에 열거된 동물들의 속성을 연결시켜

39) 임재해, 앞의 책, 61~62쪽.

40) 오세정, <우리에게 상징이란 무엇인가 : 상징과 신화 - 신화 형성과 의미화의 상징적 논리>, 『시학과 언어학』, 시학과 언어학회 제 7호, 2004, 46쪽.

바라보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5) 삼칠일

삼칠일은 이레를 세 번 지낸다는 뜻으로서 역시 <단군신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꿈이 인간으로 변신한 것은 삼칠일 뒤였다. 여기서 삼칠일은 부정 을 쫓고 소원을 성취시키는 주술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신 성을 요하는 기간의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삼칠일은 21일인데 이 날짜가 병아리가 알을 깨기까지의 날짜와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는 시기와 같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생명’과 연관 지을 수 있다.

(6)쭉과 마늘

쭉과 마늘은 통과의례의 소재로서 인간 형성과 독성 제거라는 주술적 효 력을 가진다. 웅녀가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는 통과의를 거쳐 인간 이 되는 것은 웅녀의 신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이다. 마늘과 쭉을 동원 하여 삼칠일 동안 고통을 겪은 뒤 인간이 되어 단군의 모태가 된 것 모두 신성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신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징적인 소재를 파악하는 것인 만큼, 어떤 상징적 소재가 있는지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명왕 신화>와 <바리공주> 그리고 <단군신화>에 나타난 소재를 중 심으로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이것은 수업의 실제에서 다룰 작품 을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자료 정리에 도움이 된다.

IV. <바리공주> 교육의 실제

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인 문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심사를 한 18종의 교과서가 있다. 그 중 선택 비중이 높은 문학 교과서는 천재교육, 디딤돌, 두산,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가 있다.⁴¹⁾ 그 중 <바리공주>가 실려 있는 디딤돌 출판사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실재를 구성해 보도록 한다. 먼저 디딤돌 문학 교과서에 실린 <바리공주>의 구성을 정리하여 단원이 수록된 단원목표 및 학습 목표에 최대한 맞추어 수업 실재를 구성하려고 한다.

1. <바리공주> 작품 선정 이유

위의 <표 2>과 <표 3>를 통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신화의 교육적 가치가 높아져 학생들이 신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제목을 살펴보면, 주로 건국신화나 시조신화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이 무속신화를 포함한 창세신화를 접할 기회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심화선택과목인 문학 교과서에는 <바리데기공주>나, <제석본풀이>와 같은 작품이 실려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문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무속신화 중에서도 <바리공주>를 텍스트

41) 김문태, 앞의 책, 46쪽.

트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속 신화이므로 민속적인 상징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문화의 교류로 인해 특수한 상징들이 많이 사라지고 인접 국가와 공통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무속신화는 특별한 전승자에 의해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 민속적 상징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것이다.

무속신화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중학교 보충심화 과정에 있었고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도 그나마 많은 수의 작품이 실려 있으므로 <바리공주>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이미 알려진 대부분의 신화와는 달리 여성이 주인공이므로 신화의 주인공이 남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웅의 일생 구조에도 속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영웅은 남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학의 기능 중에서 윤리적 기능이 강한 작품이다.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희생임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윤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동훈은 바리공주를 읽으면 부모에게 버려져 해외로 입양됐다가 수만 리를 날아서 친부모를 찾아오는 이들이 떠오른다⁴²⁾고 하였다. 윤리적 기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주변의 인물과 관련시켜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넷째, 상징적 소재가 친숙한 것들이므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단군신화>에는 학생들에게 낯선 소재들 예를 들어, 천부인, 풍백, 운사, 우사, 신단수 등이 나타나 고조선 시대의 배경지식이나 자료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바리테기에 나타나는 상징에는 꽃, 숫자, 새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42)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100쪽.

소재가 많으므로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덜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고등학교 시절에 바리공주가 겪는 시련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누구나 겪게 되는 통과의례이고 그것을 견디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결말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될 것이다. 김문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일정한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금기 속에 자신들을 부단히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인고의 정신으로 통과의례를 거치게 되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화의 의미가 학생들이 처한 현실과 관련지어 이해될 때, 신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학생들 현실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⁴³⁾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 대상 작품을 <바리공주>로 선정하였으며 고등학교 심화과목인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 실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2. 학습 단위 개관

가. 교사용 지도서의 단위 설정 이유

<바리공주>는 문학 교육과정의 ‘문학과 문화’ 중에서도 ‘한국문학의 성격과 특질’을 학습하기 위해 설정된 소단원이다. 디딤돌 교과서에서 <바리

43) 김문태, 앞의 책, 41쪽.

공주> 소단원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학의 연속성과 특질을 이해하고 창작에 고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둘째, 이 단원에서는 <바리공주>를 제재로 하여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바리공주>를 통해 여타의 신화와 구조적 공통성을 찾아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무속신화라는 특질로 인해 무속적 관점에서 한국문학의 특질을 바라볼 수 있다.

지도서에서는 지도상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바리공주>에 대한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바리공주>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일반적 특질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바리공주>의 특징 자체가 한국 문학의 본질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바리공주는 버려진 여성으로서 고난을 겪고 더욱 위대한 일을 해 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티프상 여성 수난이라는 한국 문학적 특질을 갖는다. 또한 바리공주의 희생적 성격을 통해 여성의 가치와 고귀함이라는 주제가 드러나는데 이 또한 한국 문학의 주요 특질 가운데 하나이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 내용들을 단순히 주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감상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절로 발견되도록 지도한다.⁴⁴⁾

한국문학의 연속성과 특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나 방법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진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신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징을 파악하는 방법의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알기 이전에 살펴보는 단계가 된다.

44) 김윤식 外, 앞의 책, 103쪽.

나. 교과서 구성 및 지도서 분석

교과서의 구성을 먼저 정리하고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바리공주>가 실려 있는 디딤돌 교과서의 구성은 다음 <표6>과 같다.



<표 7> 바리공주의 문학 교과서 구성⁴⁵⁾

구성 단계	내용 및 활동	
학습 활동	친해지기	바리공주 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연을 말해 보자
	꿈꿈히 읽기	1. 바리공주가 길을 떠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찾아보자.
		2. 무상신선을 만난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사연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3. 무상신선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살고 있을 때 바리공주가 지성으로 부모를 염려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을 찾아보자.
	이야기 넓히기	1.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의 이야기는 근대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광수의 <무정>에 그려진 박영채의 사연을 이러한 관점에서 정리해보자.
		2. 이 작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이 해석이 타당한지 작품의 내용에 비추어 토의해 보자. *한국문학에서 ‘여성의 수난과 그 극복’ 모티프의 전통* 여성이 고난을 겪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단군신화>의 용녀와 <주몽신화>의 유화의 사연에서 이미 나타난다. 또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딸이나 공주가 나중에 부모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온달’, ‘서동’, ‘숫 굽는 총각’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이야기는 <효녀지은>과 <심청전>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바리공주>의 이야기 유형은 다른 서사 문학에서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표현하기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탐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바리공주>가 구연되는 곳이 들어간다고 하자. 프로그램 안내 책자에 들어갈 <바리공주>를 소개하는 짤막한 글을 자유롭게 작성 하되, 다음 두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자. (1)바리공주의 간단한 줄거리 (2)희생과 구원의 이미지가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	

45) 김윤식 外, 앞의 책, 72~81쪽 참고 정리.

(1) 친해지기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제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목의 상징성을 먼저 예측한 후에 작품을 읽었을 때, 그 이해의 폭은 깊어질 수 있다.

작중 인물은 작가에 의해서 창작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주요 사건이나 행적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길동의 이름에서는 길할 길(吉)이 들어 있어 작품의 결말이 비극적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작품의 제목인 주인공의 이름의 상징성을 예측하는 활동을 통해 읽을 작품을 미리 예상하며 읽게 되면 학습자의 능동적인 읽기 자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학생들은 작품을 읽기전이기 때문에 ‘바리’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읽기전 활동을 할 수 있다.

(2) 꼼꼼히 읽기

꼼꼼히 읽기는 구조적인 상징성을 파악하여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보인다.

바리테기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을 찾는 활동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연관지을 수 있는 활동이다. 이미 알고 있는 작품 홍길동전이나 주몽신화를 연관지어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시야 넓히기

시야 넓히기에서는 꼼꼼히 읽기에서 선행한 학습을 통해 작품 전체 구조를 다른 작품과 연관짓는 활동이 된다. 꼼꼼히 읽기는 작품의 특정한 부분을 대상으로 답을 찾는 활동이 된다고 한다면, 시야 넓히기는 작품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이 상징하는 의미는 중요한 지도 내용으로서 상징은 주요 체계의 특성이나 이야기 구조 등 다양한 국면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바리공주>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속적 서사 문학이기 때문에 그 모티프가 상징성을 띠게 된다. 즉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주제 의식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바리공주>의 여러 가지 모티프들을 상징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리공주는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으며, 그러한 부당한 이유로 인한 고통은 당대 여성 수난의 상징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리공주의 영웅적 대처는 당대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망을 형상화한 상징적 모티프로 이해하게 해야 할 것이다.⁴⁶⁾

(4) 표현하기

표현하기 단계는 <바리공주>를 읽고 난 후에 얻은 교훈을 내면화하기 위한 단계가 된다. 문학 작품의 감상에서 최종 목표는 문학을 읽고 느낀 바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적절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점 보완

중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상징적 구조 및 소재를 파악하여 이면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신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무난한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방법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46) 김윤식 외, 앞의 책, 133쪽.

그리고 디딤돌 교과서 수록 부분은 바리공주가 병든 부모의 약을 구하기 위해 떠난 길에서 석가세존의 도움을 받는 내용과 약을 얻기 위해 무상선전을 만나는 내용만이 담겨 있다. 전체 작품의 일부를 보고 바리공주의 상징적인 소재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짧은 수업시간 내에 상징을 파악하고 신화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마인드맵⁴⁷⁾을 이용하기로 한다. 마인드맵은 핵심어를 이미지화 하여 펼쳐나가는 기법으로서 자신의 머릿속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법으로 창안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 단계의 주요 소재를 적어둠으로써 줄거리 파악에 드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인 수업 방법이 될 수 있다.

3. <바리공주> 교수-학습의 실제

가. 교수-학습 내용 개관

현재 디딤돌 교사용 지도서에서 <바리공주>를 1차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의 줄거리를 알고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1차시가 소요된다. 대단원 학습목표인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학습하기 위해 1차시를 더 설정하여 총 2차시 수업안을 계획해 보았다.

1차시에는 신화에서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높

47)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방법

아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동기유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체국의 상징이 왜 ‘제비’가 되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상징이 우리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상징 파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상징을 파악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태도를 가진다면 다른 사람보다 깊고 넓은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동기 유발을 이끌어 낸 후, 본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바리공주>의 결말 부분 일부이므로 이것만으로는 <바리공주>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없고, 문맥적 흐름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

교사는 <바리공주>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준비한 ppt를 통해 상징 해석 이전에 학생들의 스키마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활성화된 스키마를 토대로 학생들은 상징어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어를 해석하기 위한 수업을 하기 이전에 줄거리를 듣고 느낀 점을 학습지에 적도록 한다. 이것은 상징어를 이해하기 이전에 줄거리를 듣고 느낀 점이 얼마나 제한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 된다. 상징어 파악 후에 학생들이 느낀 점과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여 상징어 파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줄거리를 이해하고 상징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마인드 맵’을 활용하기로 한다. 마인드맵은 학생들이 어떤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마인드맵을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함께 알아본 <바리공주>의 줄거리를 옆에 적어두고 연상한 상징어의 의미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내는 능력도 중요하다. 교사는 정확한 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왜 적절한지 혹

은 적절하지 않은지 토의를 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중시 여겨야 한다.

몇 가지의 상징어를 해석하는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학생들은 상징을 이해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상징어를 이해한 후에 학생들이 <바리공주>에 대한 감상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지에 적어볼 시간을 준다. 상징어 이해 이전에 썼던 감상문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말해보고 신화에서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것이 1차시의 도달점이다.

1차시는 본 연구를 위해 따로 설정한 것이었으므로 실제 <바리데기>가 수록된 단원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2차시를 설정하였다. 한국문학의 특성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바리데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 <홍계월전>을 제시해 보았다.

영웅의 일생 구조로 <동명왕신화>나 <홍길동전>이 제시되었으며, 여성의 시련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군신화>나 <심청전>, <춘향전>이 함께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학습 목표 달성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다.

<홍계월전>은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작품이라 학습 목표 진단에 적합한 작품이 될 수 있다. <홍계월전>은 주인공이 여성이며, 바리데기와 같이 영웅의 일생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게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이나 고민이 들어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영웅소설과는 다르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고, 신화가 소설이라는 갈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신화 교육의 의의를 밝히며 신화가 전하는 교훈과 함께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은 꼭 가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나. 교수-학습 지도안

단 원	한국문학의 성격과 특질	본시 제재	(1)바리공주	차시	1/2
학습 목표	◎ 신화의 상징 이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바리공주를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지을 수 있다.			수업 모형	모듬
학습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	동기유발 * 우체국 로고 사진 PPT를 보여준다 “어디에서 본 것인가?” “왜 우체국에서는 체비를 상징적 소재로 삼았을까?” 학습목표 *학습목표를 모두 함께 읽어 보고 무엇을 학습할지 예측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며 다양한 의견을 말한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상징을 파악하는 방법을 예측한다. *학습목표 읽기		ppt
전개 (40')	줄거리 정리 *준비한 마인드 맵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요 소재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 탐구활동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교사가 시범적으로 하나만 보여준다.		*ppt를 보며 줄거리를 함께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메모한다. *바리공주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무엇일지 간단히 적어 본다. *교사의 설명을 들은 뒤, 개별적으로 소재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적는다.	학습지 1 ppt	

학습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40')		<p>*개별 마인드 맵이 완성되었으면, 각 모듈별로 토의하게 한다. 그 이유를 꼭 말할 수 있도록 맵 옆에 메모하기를 권한다.</p> <p>*토의 후에 각 모듈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다. 실물화상기를 활용하여 발표자의 마인드 맵을 모두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p> <p>*상징을 파악하고 나서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학습지에 적어 본다.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작품의 의미를 적을 것을 강조한다.</p>	<p>*자신이 생각한 상징적 소재의 의미를 이유를 들어가며 친구들과 토의한다.</p> <p>*발표에 참여</p> <p>*줄거리 파악 후에 적었던 것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야기 해 보고 상징을 파악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 본다.</p> <p>*신화를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고 신화학습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p>	<p>실물화상기</p> <p>학습지 2</p>
정리 (5')	정리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ppt

단 원	한국문학의 성격과 특징	본시 제재	(1)바리공주	차 시	2/2
학습 목표	◎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 모형	모듬 활동
학습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10)	전차시 확인	*바리공주의 줄거리를 정리한다. *신화를 읽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 상징적 의미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바리공주를 배우고 나서 느낀 점을 말하며 신화학습의 의의를 말해 본다.		ppt
전개 (35)	학습 목표 교과서 학습 활동 평가	*다 함께 학습목표를 읽고 문학의 연속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전차시 학습내용을 토대로 학습활동 문제를 모듬별로 토의하여 풀어본다. *학습지3을 통해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했는지 확인해본다.	*문학의 연속성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 예시 작품을 말해본다. *모듬별 토의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작품과 연관지어 타당한 이유를 말한다. *학습지 풀이는 개인적으로 한다.		학생 발표 학습지 3
정리 (5)	소단원 정리	*전차시에 학습한 것부터 모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신화를 읽고 느낀점을 자유롭게 말해 본다.		ppt

다. 수업 자료

(1) 동기유발자료

(가) [자료 1]

※ 다음을 보고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나) 자료 제시의 이유와 효과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징적 기호나 사진을 보여준다. 단순히 제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왜 우체국의 상징이 제비가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우체국과 제비를 연관시켜 사고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정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면서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연상으로 제비, 흥부와 놀부, 박씨, 행운 등 제비를 보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말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상징하는 기관인 우체국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부합하도록 찾아가면 우체국과 연관되는 상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친숙한 광고나 명칭 등을 예시로 들어주어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상징적 의미는 은연중에 내면화되며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임을 알게 한다. 상징적 의미가 광고나 속담, 기업 로고 등 현대 생활 속에도 나타남을 발견하면 상징 이해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 통하는 상징적 의미를 찾는다면 단원의 학습 목표인 한국문학의 특성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기 유발 활동을 통해 본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징을 파악하려는 능동적인 준비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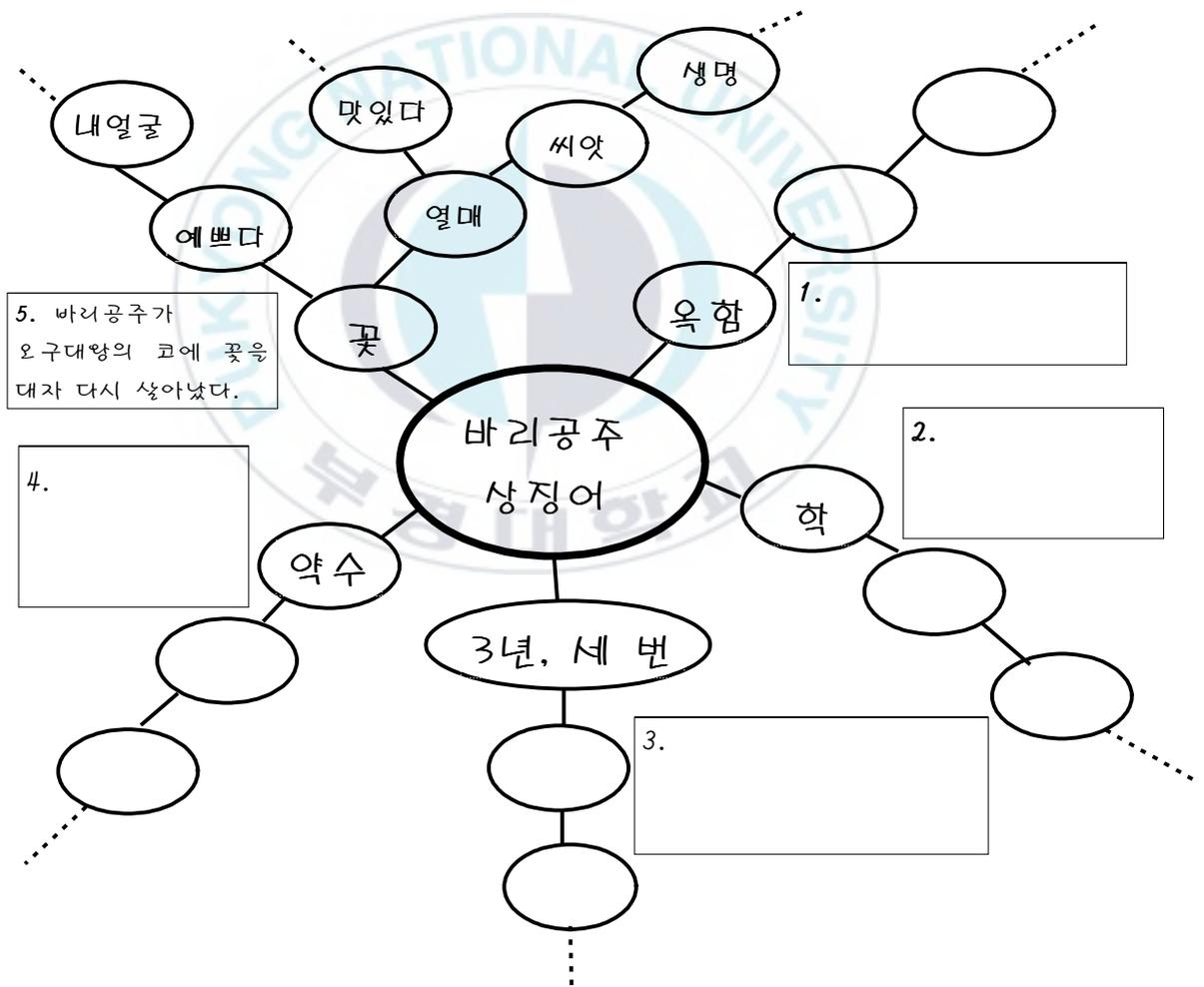
(2) 줄거리 요약 및 상징적 소재 마인드 맵(Mind Map)

(가) [학습지 1]

모듬명 () 학번() 이름()

[활동1]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마인드맵으로 나타내시오.

[활동2]각 소재가 나타난 줄거리를 요약하여 네모 칸에 적으시오.



(나) [학습지 1] 제시의 이유와 효과

짧은 수업 시간을 이용해 줄거리와 상징어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연상작용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모형이 필요하다.

바리공주의 줄거리도 정리하고 상징어가 의미하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교사가 미리 줄거리가 이어질 수 있는 소재를 마인드 맵에 넣어둔다.

마인드 맵의 시계방향으로 줄거리를 정리하고 각각의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마인드 맵의 가지를 연결해 작품에 가장 적절한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을 대비하여 마인드 맵의 한 가지 정도는 교사가 미리 제시해서 방법을 제시해 준다.

마지막에 제시한 단어인 ‘꽃’을 예시로 들어보았다. 학생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꽃에 대한 이미지를 연결시켜 보면 양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꽃이 나타난 줄거리의 부분을 읽어 보면, 대왕이 뺨살이꽃, 살살이꽃, 숨살이 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으므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은 마인드 맵 가지 곁에 연상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적어 친구들과 토의시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한다. 토의를 하면서 다른 의견에 대해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 보다는 적절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좀 더 나은 것임을 설득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준다.

(3) 신화 학습의 의의 확인

(가) [학습지 2]

모듬명 () 학번() 이름()

1. <바리공주>의 줄거리를 읽고 난 후 느낀 점을 적어 보자.

☞(※ 마인드맵을 작성하기 이전)

☺ **느낀 점:**



2.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 후에 <바리공주>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적어보자.

☺ **느낀 점:**

☺ **이유:**



(나) **[학습지2]** 제시의 이유와 효과

[학습지 2] 는 학습목표의 달성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과 파악한 후에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이해했던 신화의 내용이 상징적 소재를 파악한 후에 다르게 다가왔다면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화를 학습하고 난 후에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교훈을 얻었다면 신화 학습의 의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문학의 연속성 확인

(가) [학습지 3]

모듬명 () 학번() 이름()

※ 다음을 읽고 한국문학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리공주>와 공통적인 점을 찾아보시오.

명나라 때, 형주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 태어난 무남 독녀 계월은 어렸을 때 북방 절도사 장사랑의 반란으로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적(水賊) 장맹길로 인해 물에 던져져서 어머니와도 헤어진 후, 자신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공부를 시켜, 계월은 장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과거 급제한다.

서번과 가달국이 중원을 침범하자,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출정하는데, 보국이 홍원수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출전하였다가 대패하자 홍원수가 처벌하려다가 용서하고 자신이 나가 적을 섬멸하고 잃었던 부모와 상봉한다.

이에 천자는 홍시랑을 위국공으로, 양 부인을 정렬부인으로 봉한다. 그러다가 계월이 병이 나서 천자가 어의를 보내고 이 과정에서 그만 여자임이 탄로가 난다. 계월이 천자에게 큰 죄를 범했다고 하며 용서를 구하자 천자는 그럴 것 없다면서 벼슬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한다. 천자의 명에 마지못해 결혼하여 부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계월은 보국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 국가에 전쟁이라는 위기가 닥쳐오고, 계월과 보국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면에서 계월의 절대적 우위를 확인한 보국은 계월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그녀와 행복하게 살게 된다.

-고전소설 <홍계월전>

(나) [학습지 3] 제시의 이유와 효과

참고로 한 디딤돌 교과서에는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문학에서 ‘여성의 수난과 그 극복’ 모티프의 전통을 살펴본다

여성이 고난을 겪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단군신화>의 웅녀와 <주몽신화>의 유화의 사연에서 이미 나타난다. 또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딸이나 공주가 나중에 부모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온달’, ‘서동’, ‘숫 굽는 총각’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이야기는 <효녀지은>과 <심청전>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바리공주>의 이야기 유형은 다른 서사 문학에서도 두루 확인할 수 있다.⁴⁸⁾

이것은 학생들이 상징을 이해하고 신화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라기 보다는 바리공주와 같은 모티프가 나타나는 문학 작품들이 있음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잘 모르는 작품을 제시해주고 줄거리를 파악, 배운 방법으로 연상기법을 떠올려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소단원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알 수 있는 평가로 대체될 수도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접한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동명왕신화>나 <아기장수 우투리>는 학생들이 잘 알기 때문에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학생들이 잘 모르는 고전소설을 활용하면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긴다.

무엇보다도 <홍계월전>의 주인공이 바리공주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겪게 되는 점에서도 공통적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연관시키기 쉬울 것이라 생각된다. 당대의 여성의 수난을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내용을 통해 교육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

48) 김윤식 외, 앞의 책, 81쪽.

V. 결론

6차 교육과정에서 <동명왕 신화>만을 다루던 것에 비해 7차 교육과정은 확실히 신화 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혹은 민족 문화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화작품 상징성 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7차 교육과정의 <동명왕 신화>는 신화, 전설, 민담이라는 설화의 갈래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되었고,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는 보충심화에 수록되어 영웅의 일생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찾는데 그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습목표 달성에만 수업 시간을 할애한다면 신화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단편적인 갈래의 특성, 구조적 특성만 알고 만다면, 학습자들에게 신화는 여전히 허무맹랑한 글로 취급받을 수 밖에 없다.

신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근원이 있고, 시련을 극복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없다면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결으로 드러난 7차 교육과정의 신화 텍스트 양적 증가에만 의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신화의 상징적 의미를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신화 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화 교육의 의의와 그 방법으로 제안한 상징 교육

이 학생들의 인지구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선행 연구와 이론으로 함께 살펴 보았다. 그리고 롤랑 바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이 결합한 기호인 상징을 파악하는 것이 신화 이해에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신화 텍스트의 종류와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수업의 실제에 필요한 작품 선정과 자료 정리를 위해 <동명왕 신화> , <바리데기 바리데기 공주야>, <단군 신화>를 분석하였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바리공주> 선정 이유를 정리하고 디딤돌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실재를 제안해 보았다. 선행 연구 논문과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신화의 상징적 의미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없었으므로 마인드맵을 활용한 상징 이해 방법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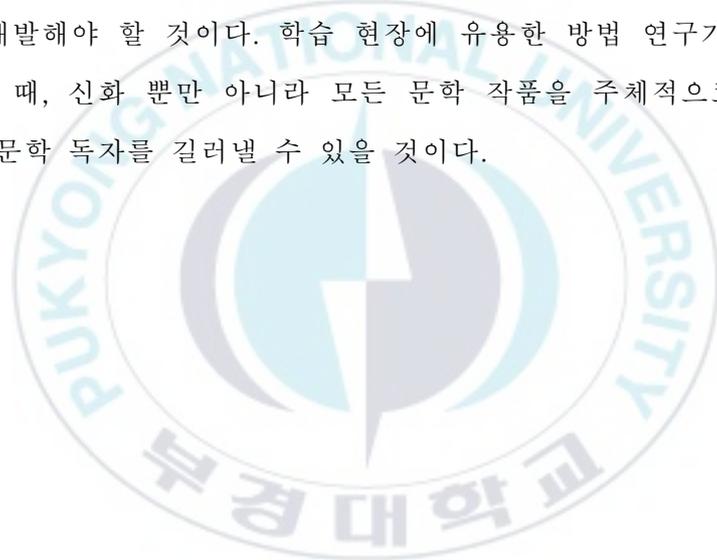
마인드맵에 교사가 설정해 둔 몇 가지 상징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줄거리 요약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첫 번째는 짧은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덧붙여 자신이 만든 마인드맵으로 모듈별 토의를 하게 되면서 상징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동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몇 가지 소재로 상징을 파악하는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상징을 파악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다른 문학 작품을 접할 때에도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징 이해를 하기 전과 후에 느낀 점을 각각 적어보게 함으로써 상징을 이해하며 신화를 읽는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신화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작품으로 받아들이려면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될 것이다. 상징을 파악하면서 학생들은 수준 높은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상징을 이해해서 신화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면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화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신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게 해야 한다. 신화 교육에서 상징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상징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학습 현장에 유용한 방법 연구가 다양하게 적용되었을 때, 신화 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평생 문학 독자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2005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2』,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2005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국어·생활국어 2-2』, 2006
- 김문태, 『신화교육과 국어교과교육의 현장』, 보고사, 2004
- 김문태, 『되새겨 보는 우리 건국신화』, 보고사, 2006
- 김용직, 『상징』, 문학과 지성사, 1988
- 김윤식외, 『고등학교 문학(하)』, 도서출판 디딤돌, 2003
- 김윤식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지도서』, 도서출판 디딤돌, 2003
- 김정섭외, 『교사를 위한 교육심리학』, 서현사, 2005
-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1
- 롤랑 바르트,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 뤼크 브느와 著, 『징표, 상징, 신화』, 탐구당, 1984
- 리영순,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훈민, 2006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1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이현숙, <바리공주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과 교육적 의미>, 『설화 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2002

-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4
- 조성제, 『무속에 살아있는 우리 상고사』, 민속원, 2005

<논문>

- 김영민, <바리데기 무가의 신화비평적 연구 - 자기 실현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제 58호, 2006
- 김영훈, <한국 샤머니즘과 경계의 의미 - 시각적 상징 연구>, 『샤머니즘 연구』, 한국샤머니즘학회 제 3호, 2000
- 김진석, <문학교육과 상징>,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vol.5』, 2001
- 민숙이, <단군신화 전승에 관한 문학 교육적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1
- 문영화, <신화교육연구-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명왕 신화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2
- 오세정, <우리에게 상징이란 무엇인가: 상징과 신화 - 신화 형상화와 의미화의 상징적 논리>, 『시학과 언어학』, 시학과 언어학회 제 7호, 2004
- 유선형, <단군신화의 텍스트 이해와 교육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4
- 최영진, <신화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2003